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세계의 중심, 차세대 중국인재 양성 학부
한국과 중국 캠퍼스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선택!



왜 부산외대 중국학부에 지원해야 하죠?

01

가장 다양한 중화권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02

탄뎀 교과목을 통해서 중국인 친구를 사귀고 중국어를 배울 수 있어요.

03

해외영어학기제(SAP)를 통해 미국·캐나다·호주 교류대학 캠퍼스에서 영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1981년 12월 26일, 부산 우암동 캠퍼스에서 시작된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중국어과를 시작으로, 영어과, 일본어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등 10개 전공을 갖추고 40여년의 역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04년 중국어학부로 개편되었고, 2014년에는 중국지역통상학과와 통합하여 중국학부로 확대되었습니다.

1986년 2월,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한 부산외대 중국학부는 2천여 명의 본과·석사·박사 졸업동문들이 사회 여러 분야와 중화권 및 전 세계 각지에서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언어능력, 중국지역 현지화 능력, 중국통상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학부는 중국어전공과 중국지역통상전공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차세대 중국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안산사범대에서의 교환학생 발표 활동 모습



필리핀 Jocson College에서 SAP 수업 모습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베이징에 있는 칭화대와
상하이에 있는
푸단대 캠퍼스를 경험해 보세요!



중국학부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중국어 전공은 실용적인 중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실무형 중국어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창하고 세련된 중국어와 통번역 능력을 바탕으로 중국 언어와 사회, 문화에 대한 심도 있고 폭 넓은 지식을 겸비한 중국관련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비즈니스·호텔관광·항공서비스 중국어, 중한·한중 통번역 연습 등 실무적이며 전문화된 고급 중국어를 학습함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중국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어 교직 과정이 설치되어 있어 중국어 교육 전문가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지역통상 전공은 중국어 언어능력, 중국지역 현지화 능력 및 중국통상 실무능력을 구비한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중국 관련 경제 및 무역·통상 분야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완벽한 어학 능력 바탕 위에서 무역실무 역량뿐만 아니라 OA(사무자동화) 능력을 겸비하도록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 FTA 시대에 기업에서 바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과목 소개

중국어 - 한국어 탄뎀

탄뎀 수업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2명의 학습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모국어를 가르치고, 상대방의 모국어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중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1:1로 탄뎀 파트너가 되어 한국어와 중국어를 서로 학습하며, 스스로의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 문화를 체험하고 중국인에 대한 이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현대중국경제의 이해

삼성전자도 반도체 공장을 투자한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여 글로벌 스탠더드, 즉 모든 국가가 지키는 기준을 지키며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공유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 2대 투자 대상국인 중국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불리며, 우리나라와 같은 개방경제와 같기도 혹은 다르기도 한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한중 언어속의 문화

중국인들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바탕을 만들기 위해 개설된 교과목입니다. 의사소통은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단순히 단어만 많이 외우거나 문장을 공부한다고 중국어를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인들의 문화와 습관,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어 소설 읽기, 중국 대학생활 알아보기, TV·라디오 시청, 중국 신문·잡지 구독 등 방법을 종합하여 문화 속의 언어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는 것이 본 교과목입니다.

중국지리의 이해

국토면적 세계 4위의 중국은 14억명의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입니다. 크게 8대로 분류되지만 실제 방언은 129종에 달

합니다. 동서 거리가 5200km에 달하지만 하나의 시간대 즉 베이징 타임만 있을 뿐입니다. 겨울철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하얼빈도 있지만, 매년 여름 40도의 열대야를 견뎌야 하는 광저우도 있습니다. 전 세계 최대 고속철 보유국인 중국은 3300km가 떨어진 하얼빈-광저우 두 도시를 15시간 만에 연결합니다. 자연지리를 넘어, 인문·경제지리를 통해 중국 각 지역별 특성과 차이점을 배웁니다.

비즈니스 통번역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용하는 통번역 관련 지식을 배우기 위한 수업입니다. 취업 후 현장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사 소개, 마케팅, 가격협상, 물품주문, 전화응대 등 주제별로 학습합니다. 관련 전문용어와 다양한 표현을 함께 학습하여,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무역, 비즈니스 현장에서 쓰는 관련 용어를 배운 뒤, 글로 표현하는 팩스, 이메일 등 번역 연습을 합니다.

QA

Q. 저는 고교 때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했습니다. 중국어가 처음인데 어떻게 하죠?

A.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부터 원어민 수준의 중국어를 구사하는 학생까지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들을 위해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게 맞춤형 중국어 수업을 제공합니다. 입학부터 개별 진단 평가를 실시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중국어 수업을 수강하도록 하고, 여러분의 중국어가 전문가 수준이 될 때까지 매학기 다양한 교과와 비교과 중국어 활동이 운영됩니다.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과 국제 표준에 맞는 중국어 수업으로 여러분의 중국어 수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완성해보세요.

Q. COVID-19 발생 이후에 중국으로 교환학생 가기가 꺼려집니다.

A. 온라인 탄뎀 활동은 중국 및 대만 현지 대학의 한국어과 학생들과 온라인을 통해 우정을 쌓고, 중국어 학습도 동시에 할 수 있는 활동입니다. 중국 현지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에 도전하기 전에 내가 가고 싶은 중국 대학의 친구를 먼저 만들어 놓는다면, 중국에서 공부하는 기간이 더 즐겁고 유익하겠죠? 중국인 현지에 있는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우리 중국학부 온라인 탄뎀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2020~2021년도에 상해외대, 대만실천대, 상해삼달대, 서안외대, 대련외대 재학중인 중국인 학생들과 온라인 탄뎀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Q. 중국어도 배우고 스튜어디스도 되고 싶어요.

A. 복수전공 제도는 중국학부 외 다른 전공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부는 링크 플러스라는 연계전공(복수전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호스피탈리티와 이문화경영이라는 연계전공을 통해 호텔·서비스업, 항공업 분야 취업의 길을 앞당기세요.

언제라도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나?

1학기, 1년, 2년, 방학기간 등 여러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에 맞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가이드 해 드립니다. 2학년 1학기가 지나면 참가할 수 있으며, 방학기간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언제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교류 대학이 부산외대에 낸 등록금만으로 갈수 있으며, 추가 비용을 내야하는 대학도 다양한 장학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① 복수학위제

2+2 (2년은 한국에서, 2년은 중국에서)라고 부르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2년, 외국 교류대학에서 2년을 수학한 후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양 대학에서 동시에 학위를 받는 제도입니다. 중국에서 대학원을 진학할 경우 혹은 중화권 해외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전해 보세요.

② 장단기수학제도 (3+1, 7+1)

3+1은 1년간, 7+1은 1학기를 외국 협정체결 대학에서 휴학 없이 수학하여 취득한 학점을 우리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졸업후 취업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지원자들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경험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에서는 모든 재학생들의 참여를 권장합니다.



교류대학인 상해외국어대학에서 단기어학연수를 마치고



겨울방학 대만 중국어 어학연수단 출국 모습

③ 방학 중 단기어학연수

우리 학부에서는 매년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학부 교수님들이 인솔하는 단기어학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비 부담(학비·항공비·숙소)이며, 중국학부 재학생은 물론 중국어를 부·복수전공하는 타과 학생들도 참여합니다. 4주간 진행되며, 중국 및 대만에 있는 자매대학 어학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해당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기 때문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중국어 학습이 가능합니다. 평가를 통해 수준별 반편성을 하여, 중국어 초보자도 부담 없이 현지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 선생님들과 참가하는 문화 활동(교외 수업)도 있습니다. 어학 과정 수료 후, 평가시험을 통과하면, 일반 혹은 전공학점(최대 6학점)이 인정됩니다. 단기어학연수의 목적 중 하나는 장기수학제 및 복수학위제를 미리 경험해보는 일입니다. 중국 및 대만에서의 학습 및 체류경험 없이 무작정 도전하는 장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중도포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QA

Q. 어떤 대학들에 갈 수 있나요?

A 매학기 우리 대학에서는 20여개 중국 및 대만 교류대학을 대상으로 100여명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형(2+2, 3+1, 7+1)과 파견대학 종류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 HSK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매학기 파견대학 목록은 중국학부 홈 페이지 국제교류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여러분이 입학하게 되면 지도교수님과 상담을 통해 나에게 가장 맞는 대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중국만 갈 수 있나요?

A 우리 대학에는 '7+1 영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해외영어학기제(SAP: Semester Aboard Program)가 있습니다. SAP는 미국,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교류대학에서 1학기 동안 영어로 제공되는 수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학 중심 교과 과정에 참여하며, 최대 18학점이 인정됩니다. 장학금이 일부 지급 되지만 우리 대학과 등록금 수준이 같지 않은 미국·캐나다 대학들의 경우 학비 추가납부가 필요합니다. HSK6급을 이미 획득한 선배들은 SAP 참여를 통해 취업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Q. 아무나 갈 수 있나요?

A 현지 대학에서 중국인 교수님이 중국어만으로 하는 수업을 1학기, 1년을 들으려면 기초 중국어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우리 대학 국제교류처 역시 선발 조건으로 최저학점 기준을 정해서 해외에 나간 우리 재학생들이 제대로 실력을 쌓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학부에서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은 누구나 나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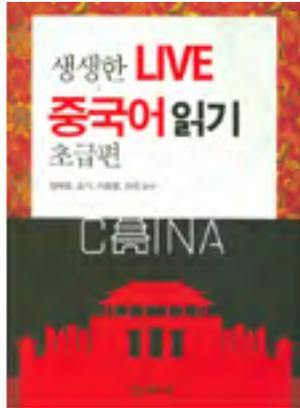
3+1을 다녀온 선배의 소감 (이*정, 3학년)

제가 대련외대를 선택한 것은 우리 학부 선배들이 이미 다녀와 경험이 축적된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북의 상하이라고 불리는 대련에서 생활해 보고 싶은 꿈도 있었습니다. 대련 외대 커리큘럼은 단계가 많이 나누어져 제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1학기 때에는 적응하느라 조금 고생했지만, 2학기 때 만났던 선생님은 중국어뿐만 아니라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이슈를 수업 때 설명해 주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면에서는 불편은 없었습니다. 대련이 한국 대도시 못지 않게 기반시설과 문화 인프라 면에서 손색이 없는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3+1을 다녀온 후, 제가 익힌 중국어가 현지에서 사용되는 중국어와는 다른 것을 실감했습니다. 부산외대에서 처음 중국어를 접한 후배들은 3+1 나가기 전에 회화수업을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특히 원어민 교수님 강의에 참여하세요. 지역학(정치·경제·문화) 과목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가는 것도 현지수업 발표시간에 도움이 됩니다.

단기어학연수 소감 (백*영, 2학년)

나는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었고 HSK 자격증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대만 어학연수가 조금 망설여졌다. 첫날 레벨 테스트를 통하여 반을 나누었는데, 고급반 수업을 듣게 되었다. 첫 수업은 멍하니 보낸 것 같았다. 친구들이 도와주고 선생님께서도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한국과 달리 모든 설명이 중국어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다. 새로운 단어나 표현들을 배울 때 확실히 이해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다. 우리 반은 매일 숙제와 단어시험이 있었고, 한 과가 끝날 때마다 작문시험을 보았다. 선생님께서 간체자도 허용해 주어 어렵지 않게 기말시험을 볼 수 있었다. 대만 친구들과 대화하며 회화실력을 높일 수 있었고, 대만 관광지를 방문하고 태극권, 서예 등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 무엇보다도 중국어를 더 배우고 싶다는 의지가 생긴 것이 큰 보람이다.

중국학부에는 어떤 교수님들이 계시죠?



한국 최고의 중국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정태업 교수입니다. 저는 한중수교와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남경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1999년부터 우리 학부에서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KBS영상번역위원, 부산지방검찰청 통역위원, 부산시 국제교류자문위원, 관광통역안내사 면접위원,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출제위원 등 중국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소통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대한중국학회회장(2019~2020)으로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우리 학부를 중국학 중심으로 견인했으며, 중국 최초 사선집(詞選集)인 화간집 500수를 최초 번역한 「화간집전역」을 출간하였습니다. 「UP중국어(공저)」

「생생한 Live 중국어 읽기(기초-초급)」, 「중국문화와 커뮤니케이션(공저)」 등 교재를 통해 여러분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사회 및 연구경험을 교육에 접목시켜 여러분을 전국 최고의 중국 전문가로 키워드리겠습니다.



부산외대 중국학부에 관심을 가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국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김동하 교수입니다. 그간 포스코경영연구소, 한국외환은행 경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중국경제와 기업을 연구했고, POSRI 베이징 사무소 대표(2005~2007)로서 현지 경험을 쌓기도 했습니다. 부산외대에서는 2009년부터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여러분을 한중 FTA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안화 경제학」, 「차이나 머천트」, 「중화경제권의 이해」, 「화교역사문화 답사기1」, 「현대중국경제사」, 「차이나 키워드 100(공저)」 등 저서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가장 많이 무역을 하고 있는 중국을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이

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세계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제가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산동 캠퍼스에서 만나길 기대합니다.



大家好!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중국어전공 이효영 교수입니다.

저는 중국어교육 전공자로 중국 현지대학에서 외국인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험을 쌓았고, 귀국 후 한국인 학생과 중국인 학생이 같이 학습하는 탄뎀 학습법 또는 플립러닝, PBL과 같은 학습자중심 중국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AI중국어 챗봇, 중국문화VR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미래형 수업을 개발하여, 해외교류대학 학생과 함께 하는 에듀테크 활용 중국어 수업을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에게 개인 맞춤형 중국어 수업을 제공하려 합니다. 「Live 중국어 현지회화의 모든 것」과 「실용중국어문법」 등

과 같은 교재를 통해 여러분의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 대학과 차별화된 중국어 수업을 경험하고, 경쟁력 있는 중국어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우리 중국학부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중국어학, 중국문학, 중국지역학, 언어학, 교육학, 중국정치학을 전공하신 20여분의 한국인 및 원어민 교수님들께서 여러분을 중국 실무형 인재로 키우기 위해 강의실은 물론 캠퍼스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부산외대 중국학부에 관심을 가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학부 중국지역통상전공 외국인 전임교수 타이허언(戴栢)입니다. 저는 중국학부에서 유일한 대만 출신 원어민 교수이기도 하죠. 부산외대 중국어전공 박사과정 수료 후, 부산외대와 부산외대 평생교육원, 공무원언어연수 과정 등에서 중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제 전공은 어휘학이고 특히 중국과 대만 어휘 비교 그리고 중국·대만·한국·일본 한자어 비교에 대해 연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수업은 중국어회화, 중국어읽기, 중국어쓰기 그리고 무역중국어입니다. 또한 중국학부 대만문화동아리 모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대만의 문화, 관광, 역사, 지리 이슈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어로 아름다운 섬이란 뜻의 포모사(Formosa)라는 애칭을 가진 대만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외대 중국학부 중국어전공 외국인 전임교수 조소군(曹蓀君)입니다. 저는 중국의 경제 수도라 불리는 상하이에서 자랐습니다. 더 쉽고 재미있는 강의는 물론 온라인에 특화된 멀티미디어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이해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강의에 참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 환경을 구축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중국 친구들과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플랫폼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통한 경험은 여러분의 중국 현지연수와 여행에 도움이 될 겁니다. 중국어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배우고 싶은 여러분들을 곧 강의실에서 보기를 기대합니다.



부산외대 중국학부를 주목해 준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학부 중국지역통상전공 외국인전임 교수 허로천(許璐茜)입니다. 반갑습니다. 베이징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2008년에 한국에서 유학생생활 시작했습니다.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부산대 언어교육원, 부산대 중국연구소, 동의대학교 중국전문과정 등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IT 역량, SNS 소통, e-비즈니스 능력을 키워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 주요 대상은 중국이죠. 저는 중국 여러 회사의 온라인 업무를 맡았었고, 플랫폼 기획과 운영 등 경험을 쌓은 바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학부에서 전자상거래와 중국어 프레젠테이션 등 전공과목을 통해 제 경험을 여러분 선배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타오바오, 틱톡, 위챗 등 다소 생소하지만 중국과의 e-비즈니스에 필수 과정인 중국 IT 환경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5G시대를 경험해보실래요?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궁금해요.

중국학부에는 원어 연극, 중국 노래, 춤, 대만문화, 경제시사토론, 축구, 농구 동아리 등 다양한 분야의 학부 동아리가 있습니다. 학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강의실에서 뿐만 아니라, 운동장, 무대, 공모전 등에서 교수님, 선배들과 함께 중국어를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중국학부 학생회 자치 행사인 '장성지야'를 통해 각 동아리에서 쌓아 놓은 실력들을 친구들과 교수님들께 선보일 기회도 있죠.

원어 연극 동아리

패왕별희와 낙락공작방은 여러분들의 중국어 실력을 연극 통해 좀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지금까지 동아리 선배님들이 해왔던 연극 비디오 감상을 통해 동아리 의미를 알아가고, 대본 읽기를 통해 연극 연습도 하죠. 또 대본 안에 있는 생활 속 중국어도 공부할 수 있어요. 신입생을 위한 중국어 스테디를 통해 한 단계 중국어 실력도 업그레이드하고 선후배간의 돈독한 정도 다지게 됩니다.

중국어 스테디 동아리

중국어 스테디 동아리는 초급 및 중급 실력자를 중심으로 학부 교수님들의 지도로 방과 후 혹은 방학기간에 활동을 하는 중국어 학습 동아리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중국어 낭송대회에 참가하여 그동안 연마한 실력을 검증할 기회도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중국어 배우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중국 노래 동아리

중국음악을 배우는 우리 동아리 이름은 천장지구(天長地久)인데, 하늘과 땅처럼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중국음악 뿐만이 아니라 한류열풍의 주역이 되고 있는 여러 한국 가수들의 노래도 중국어로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래 실력을 우리 동아리에서 뽐내보세요.



중국어 원어연극 모습과 중국 노래 동아리 공연 모습

중국 춤 동아리

동방명주는 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 중국 전통무용에서부터 아이돌 커버 댄스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는 춤 동아리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부산외대 축제에 학부 대표로 참가하여 여러 차례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끼를 여기서 마음껏 자랑해 보세요.

경제시사 토론 동아리

경제시사 토론 동아리는 경제 관련 기사 스터디를 통해 실물 경제(기업, 산업)의 이해를 돕고, 중국 및 한국의 거시경제 현상을 공부하는 동아리입니다. 또한 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 증시 모의투자를 진행하여, 중국만이 가진 특별한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동아리입니다. 기업 활동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경제, 경영 관련한 대학생 공모전 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만문화 동아리

대만의 다양한 문화, 경제, 통상, 무역, 관광 등에 대해 현장 학습 활동을 통해 연구하고 이해하는 학습 동아리입니다. 또한 우리 대학에 와 있는 대만 교환학생들과 교류를 통해 글로벌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만에서 사용하는 번체자(繁體字) 한자를 학습할 수 있는 오프라인,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농구 동아리

농구동아리(Deny)는 운동 뿐 아니라 대학 생활의 질과 즐거움을 높여줍니다. 선배들이 많이 포진한 Deny는 선후배간 만남의 기회를 통해 대학 생활 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동아리 안에서의 체육 활동은 많은 재학생을 보유한 큰 규모의 중국학부 내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으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응원을 통해 소속감을 형성하세요. 선후배간 친목을 통해 즐겁고 보람 있는 캠퍼스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중국어 춤 동아리 모습과 농구 동아리 Deny

수업 외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탄뎀 수업, 비교과 프로그램

탄뎀(Tandem)은 독일어로 ‘두 사람이 함께 타는 자전거’를 뜻하며, 1980년대 독일 등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현재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는 외국어 학습법입니다. 탄뎀 학습법은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가 ‘돌이서 함께’ 상대방의 말을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 보완적 학습활동을 의미합니다. 언어적,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율적이며 자기주도적으로 상호 외국어 학습, 문화간 이해, 글로벌 의사소통을 학습·체험하는 것이 탄뎀 학습입니다.

중국학부는 부산외대에서 2007년 최초로 국내에 탄뎀 교수-학습법을 도입하고, 2009년부터 이를 여러 외국어 수업과 학습 활동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숙사 탄뎀, 탄뎀존 등의 비교과 활동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시간, 공간을 넘어 소통할 수 있는 e-탄뎀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도 경험하기 힘든 탄뎀 학습법을 우리 중국학부 강의실에서 경험해 보세요.

BU FS 중국학부
Division of China

Tandem
FOREIGN LANGUAGE EDUCATION SYSTEM



전주 한옥마을로 탄뎀 체험학습을 떠나며...

전국 대학생 중국어 프레젠테이션 대회

전국 대학생 중국어 PRESENTATION 대회는 단순한 말하기 대회의 성격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외국어와 실무적 Presentation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08년에 우리 학부 주최로 제1회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매년 개최된 대회에서 전국 50여 개 대학의 대학생들이 참신한 주제와 다양한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활용해 경연을 벌여왔습니다.

또한 미래의 중국 전문가를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장학재단 및 다른 기관과 협력을 통해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5회 대회부터는 중국 현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관련기관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대학생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팀을 이루어 참가하는 대회에 예선 단계부터 학부 교수님들이 여러분을 지도해 드리며, 선배들의 대상·금상 등 수상 영상은 중국학부 유튜브 채널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제12회 대회 (2019년) 시상식 모습

졸업 후 저의 진로는 어떻게?

여러분 선배들은 이런 곳에 진출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 학·교육계** 중국 어학 및 지역학 교수, 중·고교 교사(교직과목 이수자), 중국어 학원 강사, 정부·민간연구소 연구원
- 기업 및 산업계** 대기업 및 중소기업, 외국기업(중국·중화권), 무역회사, 서비스업(항공사 운항 및 지상직·면세점 카지노·MICE기업·여행사), 판매유통업(물류 및 유통사·전자상거래기업)
- 출판·문화계** 번역가, 통역가, 문화예술 콘텐츠 기업
- 정부·공공기관** 경찰외사요원, 중국관련 협회 및 기관단체, 주한중국대사관, 중국관련 법률 및 특허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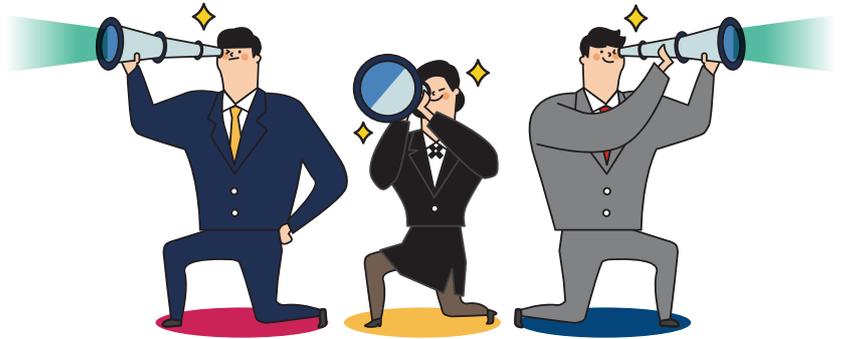
세계 인구 16%가 사용하고 UN 6대 공식어 중 하나인 중국어

전 세계에서 가장 사용자가 많은 언어는 중국어로 세계 인구의 16%인 12억 84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스페인어, 영어, 아랍어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어는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아랍어·러시아어와 함께 6대 UN 공식어 중 하나입니다 (Ethnologue. 2019). 중국어를 사용하는 많은 일자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 대상국이자 2대 투자 대상국, 무역 관련 최대 일자리 창출

2020년 우리나라 수출의 25.9%와 수입 23.2%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2019년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해외투자를 많이 한 곳도 중국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아시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이 첫 번째입니다. 이러한 투자와 무역은 일자리와 연결됩니다. 2017년 우리나라 일자리 (2,316만개) 중 18.1%인 420만개는 수출기업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절반 이상은 중국 관련 기업입니다 (KOTRA. 2018).

중국학부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분야 진출에 성공한
'졸업생 취업 성공기'를
확인해 보세요!



중국학부에서는 매년
취업캠프를 개최하여
여러분의 취업 경쟁력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년 다양한 분야의
졸업 선배들을 초청하여
맞춤형 취업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K-Move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험하는 해외 KOTRA
무역관 활동



졸업 선배들의 한나답!

D.H컨설팅

D.H컨설팅 |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이OO (2010학번)

저는 부산외대 중국학부 입학 시 중국어를 주로 쓰는 분야에 취업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직업을 탐색한 결과, '통역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교내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은 통번역센터 산하 학생 자치기구인 '학생통역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통역자원봉사부터 실제 국제회의에서 통역수행원을 하는 등 통역사가 하는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통역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하여준 것은 3+1 교환학생 프로그램(중남임업과기대)에 참여한 것입니다. 중국 내 자매대학에서 중국학생들과 같이 1년 동안 생활한 것은 어학실력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통역사가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까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통역 중에서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4학년 때 '중국어 의료관광 커뮤니케이션' 과목을 접하고부터입니다. 즉 의료분야 지식을 축적하여 좀 더 전문화된 특수목적 통역사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있는 한 의료관광컨설팅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저를 찾는 중국인 고객들에게 더 좋은 의료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의료분야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Booking.com

Booking.com | 싱가포르 해외취업 정OO (2012학번)

제가 부산외대 중국학부에 입학한 이유는 중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중국에서 나와 어느 정도 중국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갖추어진 상태였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제 꿈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간사이외대에 교환학생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아시안 스터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본 내 학교지만 영어로 수업을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일본어 한 마디도 하지 못했던 저는 토익 성적을 제출하여 간사이외대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었고, 1년 동안 정규 과정 교과목 외에도 기초일본어를 배우오는 수확을 거두었죠. 이후 제 꿈은 해외취업으로 바뀌어 산업인력공단과 우리 대학이 추진하는

K-MOVE 해외취업 연수에 참가하여 싱가포르에서 취업을 위한 교육·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행관련 온라인 업체인 싱가포르 북킹닷컴에 취업하여 Customer Service 부서에서 전 세계 여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요구됩니다. 저는 재학시절 경제시사토론 동아리에 가입하여 제가 활약하고자 하는 지역 내 경제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중국어 능력, 간사이외대 교환학생 경험 그리고 싱가포르 취업연수 프로그램 참여 등이 현재의 저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지고등학교

성지고등학교 | 중국어 교사 박OO (2010학번)

저는 부산외대 중국학부에 지원하기 전부터 교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저 선생님은 저렇게 수업하는구나,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구나’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처럼 교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중국학부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되면서 교사의 꿈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저는 부산외대 입학 전 다녀온 중국 유학생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를 접했고, 그 덕분에 친화력이 늘어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성격도 활발하게 바뀌었습니다. 중국학부에서는 학생회 홍보팀장을 맡았고, 덕분에 리더십 또한 생겨 고학년이 되어서는 아시아대학 부회장을 맡아 활동을 했습니다. 학생회라는 사회생활은 저에게 책임감·통솔력·추진력을 기르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대학시절 그룹 및 개인학습지도를 통해 교육자를 체험을 하였고, 부산국제고에서 ‘교생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교육하는 교수법, 학생과의 대화방법 등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가 없었던 과목을 좋아하게 만드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학생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인생의 향로까지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마음까지 감동시키는 교사가 진정한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학생에게 마음이 따뜻한 스승으로 기억될 수 있는 교육자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중화항공

중화항공 | 외국항공사 지상직 박OO (2007학번)

저는 평소 항공사 지상직이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항공사 취업과 관련된 학원, 취업 카페 및 항공업계에 종사 중인 선배들과의 연락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정보를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항공사 관련된 자격증(ABACUS) 취득과 외국항공사(베트남항공) 인턴경험을 통해 지원자들과의 경쟁력을 두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외국항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국어 실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국어 실력만으로 취업에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관심분야와 관련된 업종에서의 인턴기회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행동이 취업하는데 성공요인으로 작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컴퓨터

관련된 지식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취업 후 회사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저의 중국어 실력은 광동외어외무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익혔으며, 영어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휴학 후 뉴질랜드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사시 제 어학능력은 경쟁자와 비교하여 높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때 관심분야에 대한 취업정보를 얻기

위해 한 활동(관련 자격증 취득 등)들과 인턴 경험을 면접관들이 높게 평가 해주셨습니다.

또한 실제 면접을 보면서 내가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자하는 나의 열망에 대한 진정성과 자신감을 어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G-TRACK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물류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동 프로그램은 회사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주며 방학기간에 4주간 물류현장에서 현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인턴십과 OJT(현장)교육을 통하여 평가·면접절차를 거쳐 졸업 후 정직원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저의 약점은 물류이겠지만 강점은 어학이었습니다. 따라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물류관련 지식 습득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는 중국지역통상을 전공으로, 국제무역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선택 했습니다. 교환학생도 남들보다 먼저 준비하였습니다. 강의실에서 배운 과목(중화경제권, 중국지리)은 물류·무역회사의 면접 질문에 적절히 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OJT과정에서 발표할 때도 물류전공자들 앞에서 저만의 차별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인턴들은 중국의 지역별 특징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물류·무역회사에 지원할 후배들은 어학을 먼저 마스터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후에 물류·무역에 관하여 기초지식을 쌓고 나아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바랍니다. 부산외대에 입학하여 어학을 배우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는 복수전공을 선택하세요. 캠퍼스에서의 다양한 경험도 입사 후에 큰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교내외 많은 공모전과 대외활동 경험은 현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부산중국총영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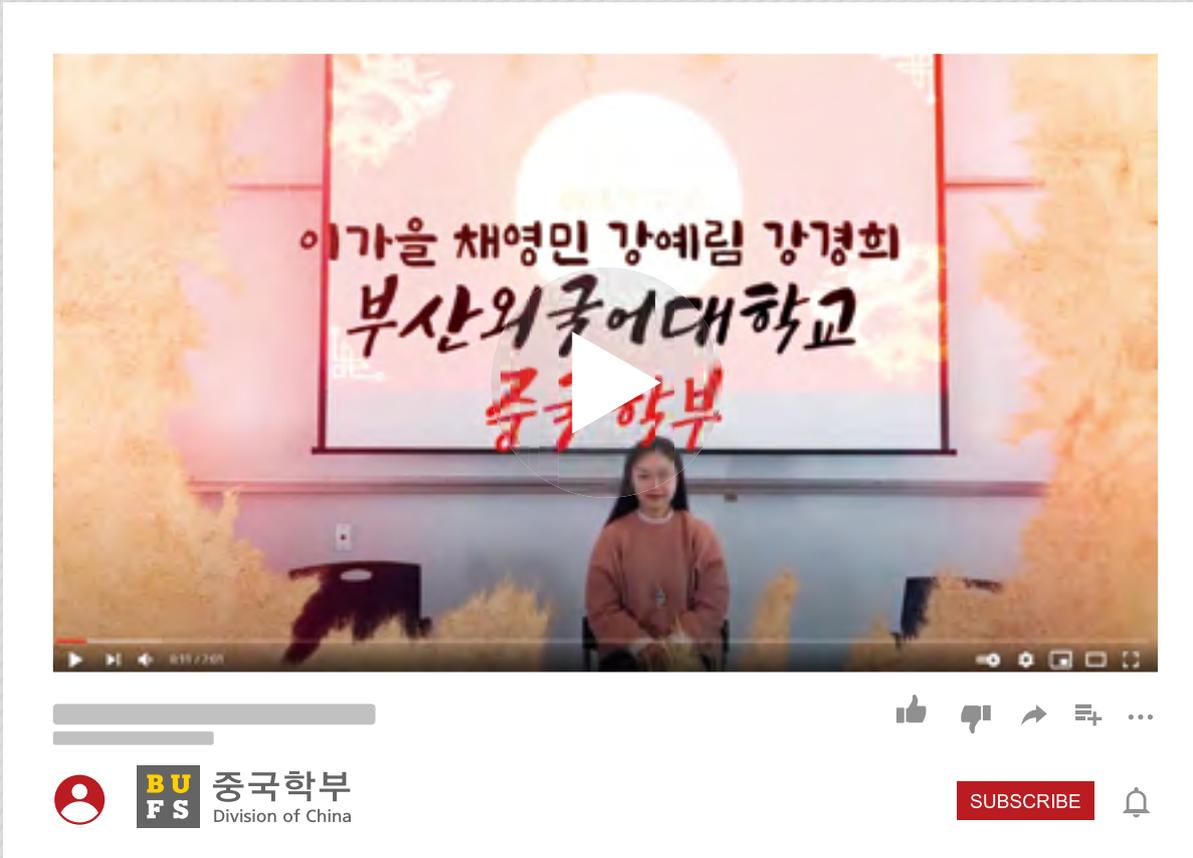
처음부터 영사관에 들어가고자 취업 준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에 성실히 수업에 임하고, 중국어 통역 관련 대외활동, 자격증 준비과정 등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취업에 도움 된 과목을 꼽으라면 중국어 말하기나 탄뎀 수업들이 회화 실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부산외대 크루즈관광버디 중국어 통역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었는데, 이 경험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1학년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많은 경험을 해보세요' 입니다. 저는 중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어서 어학연수 대신 대외활동이나 학교 수업에 충실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학부 학생이라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중국 캠퍼스 생활도 해보세요. 또 학교에서 주최하는 여러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세요. 인턴이나 대외활동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군과 관련된 경험치를 쌓아두기 바랍니다. 저는 필기와 면접을 보았는데, 연합뉴스, 중앙일보 등 국내 뉴스를 중국어로도 동시에 서비스하는 사이트를 보며 준비했던 것이 합격의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힐튼 부산

제가 이곳에 취업한 계기는 우리 학부 학생들이 주로 하는 호스피탈리티 연계전공(링크플러스 사업)을 통해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의 채용 관계자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직업에 대한 이해도와 실무에 어떤 소양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게 해 준 귀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5성급 호텔에 입사하기 위해 외국어 능력은 기본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비스 마음가짐이 보일 수 있게 성품을 길렀습니다.

힐튼은 다국적 호텔 체인인 만큼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기본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다른 유명 호텔들을 탐방, 실습하며 직무 경험을 길렀던 것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목표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는 소위 '스펙'이 부족했음에도 대외 및 직무경험으로 보충했습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자격증이 아니라 내가 입사 후에 회사에서 나아갈 목표와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 열정과 잠재력을 확인시킨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믿습니다.



YouTube



중국학부 유튜브 채널이
오픈 되었습니다.

교과 과정, 해외교류대학 이모저모,
탄뎀 프로그램, 교수님들 모습, 동아리 소개 등
궁금한 것은 바로 생생한 영상자료로
확인하세요.





중국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사진과 문서 등 여러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chinese.bufs.ac.kr>

중국학부 사무실로 전화 또는 이메일을 주세요.

전공주임 교수님들께서 여러분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십니다.

051-509-5771 / 509-5799 / china@bufs.ac.kr